

연중 제18 주일 (가해)

화답송 : 시편 144, 8-9. 14-15. 16-17. (© 15 참조)

손상오 신부 작곡

(후렴) 주님 주님께서는 손을 벌리시어 저희를 배불리시나이다

1. 주님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 신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신분
 2. 모든 눈이 주님께 바라 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 때에 주시나이다
 3.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행동에서 성실하시도다

주님은 모두에게 졸으신분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위에 미치지도다
 주님의 손을 벌리시어 모든 생물을 호의로 배불리시나이다
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당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도다

D.C.